

특별인터뷰 | 배영모 광주광역시지부 회장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4일 광주시지부 제 10대 회장으로 배영모 회장(65)이 취임했다. 5개 지회 1만 5000여 명의 회원들과 국리민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배 회장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임회장으로서 소회와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은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광주시지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국리민복을 바탕에 두고 자총 본연의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취임 이후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우리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로 많은 시민이 우리를 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집단 등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자총 회원 한 명 한 명이 국리민복을 바탕으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홍보활동을 꾸준히 병행해 자총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타 단체 봉사단과의 교류 및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지부의 현안 과제가 있다면.

“우리 지부는 다른 지부에 비해 5개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회원 배가, 안정적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지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준다면 그것이 회원 확보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 지부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여성·청년협의회 및 동분회협의회의 활동이 다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며 지부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인재 영입과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확충을 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앞으로 펼칠 역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지부는 자총의 역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하여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미디어 교육, 어머니포순이봉사단·지구촌재난구조단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개 지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자총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감안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 자총 회원 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자총은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이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여러 선배님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총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부터 희생하는 각오로 최일선에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국리민복의 가치 아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이태희 KFF뉴스 기자

■ 주요 경력 ■

- (주)유진종합건설 대표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41대 총재
-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상임 공동대표



◇10월 24일 배영모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미디어 체험 교육을 받기 위해 광주미디어센터를 방문한 모습.

이 책이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종환 총재의 <책을 펴내며> 중에서

국리민복과 사회통합

목차

- ① 국리민복(國利民福)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
- ② 일상생활에서 자유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시민교육
- ③ 탈진실(Post-Truth), 가짜뉴스 그리고 민주주의
- ④ 국리민복과 평화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기초로
- ⑤ 국리민복 가치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개선방안: 다문화 교육

발행인 박종환
저 자 강원택 외 4인
발행일 2019년 11월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